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8호 [루게 제24511호] 주제 103(2014)년 5월 18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청천강계단식 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현장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청천강을 보배강으로 전면시킴에 당의 대자연계조상을 만들고 돌격대에 탄원한 신의 주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돌격대원들이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정신이 맥박치는 노예들을 훌륭히 형성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행전으로 힘있게 불어넣어주시는 데 적극 이바지한 모란봉악단 배우 류유미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배우칭호를 수여한다.

부원 주금향은 조국의 만민재부를 함께 일떠세우는 심정으로 지원사업에 앞장섬으로써 발전소건설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고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을 많이 한 만경대구역의 봉사사업소 노동자 김미향은 청춘거리에 육촌개건공사장에서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평안북도정보통신국 부원 고순철은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가는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고 맡은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모범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의 사랑을 받고있다.

반영에 적은 힘이나 이바지할 마음으로 수 십차례에 걸쳐 물길공사장에 많은 작업공수와 후방물자를 보내주고 경제실행활동도 잘하여 돌격대원들의 전투적기회를 북돋아주었다.

금야군 읍 84인민반 부양 김순녀도 뜨거운 애국의 일념으로 물길공사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에게 여러차례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를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은애국주의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위업을 충성다해 받들어나감으로써 당의강성국가건설에 한몫 바치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호

주제103(2014)년 5월 17일

류유미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배우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음악예술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타는 창조적열정과 전투적기백으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정신이 맥박치는 노예들을 훌륭히 형성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행전으로 힘있게 불어넣어주시는 데 적극 이바지한 모란봉악단 배우 류유미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배우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별령

제 9 차 전 국 예 술 인 대 회 폐 막

【평양 5월 17일 조선중앙통신】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2일회의가 17일에 진행되었다.

대회장은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서한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의로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계속되었다. 조선인민군창작사 사장 강정호, 김철원 명칭 평양음악대학 교원 황진철, 모란봉악단 부단장 김운봉, 배우 류진아, 부단장 황진영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혁명가들이며 우리 당사상사업의 척후병들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끊임없는 혁신과 창조가 이룩되도록 이끌어주시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선의 새것, 시대가 바라는 인민이 사랑하는 명작들이 태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주체문학예술의 생명이고 당의 선군혁명적명작창작의 영원한 주체이며 종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창조적 열의에 누구나 자신을 따라세우기 위해 분발한다면 얼마든지 명작을 창작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새시대 문학예술혁명의 기관차가 되어 내달리는 모란봉악단의 음악보성과 공훈국가합창단의 국가합창은 원관단의 심정에 불을 지피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업의 줄기찬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그리고 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대회에서 토론자들은 원시기 문학예술부문의 부진과 침체의 원인은 창작가, 예술인들의 그릇된 사상관념과 미학관에 있었으며 이것은 결국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념문제와 직결되어있는데 대하여 심각하게 반성하였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유근은 은 작가들이 주옥같은 문학작품들로 가득찬 조국의 벽간 현실을 심장으로 감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객상머리에만 매달리면서 중군작가들처럼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지 않고 당의 사상으로 피를 끓이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일군들부터가 명작창작의 앞장에서 작가들의 심장에 창작적열정의 불을 달지 않으면 작가동맹이 우리 당의 참된 붓대동지들의 대대로 될수 없고 붉은기와 떨어진 참모없는 집안다 되어 시대바로 밀려날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만수대에 술단 단장 김일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음악예술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사업을 잘하지 못하고 《만수대정신》의 계승자답게 살며 일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수많은 송가들과 시대적명작들을 창작형 상하여 당의 음악정치를 만들어가는데서 선봉적역할을 한 판독있는 예술창조집단의 공격과 본래를 살리지 못하고 당정책관철을 위해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을 전개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홍광순은 영화부문에 당의 의도와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에 발걸음을 맞추지 못하고있는 실태를 분석하였다.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리론, 우리 식의 창작지도체계와 창조준칙을 철저히 구현하지 못하고 영화창작부진상태가 지속되어 당의 사상전진에 공백이 생기게 한것은 영화부문에 대한 당지도, 정책지도를 바로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에서 과업을 주면 열매를 맺어주지 않는 무조건적 명작으로만 만들어내는 투철한 결사관철정신, 끊임없이 새것을 만들어내며 인민들을 격동시키는 혁신적인 창작조기, 향일유격대식으로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전구마다를 총력무진하며 중군예술 활동을 벌리는 모란봉악단 창작가, 예술인들의 불같은 열정은 오늘의 시대에 당과 수명을 어떻게 노래하고 만들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원시기 문학예술의 역할문제, 창작가, 예술인들의 시대적사명과 임무의 중요성을 재인식, 재확인하고 한편의 영화나 글이 수천의 식량이나 수만발의 포탄을 대신하는 우리 당사상사업의 위대한 무기가 될수 있도록 새로운 문예정신을 펼쳐 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은동지께서 마련하신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전통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문학예술의 현제이며 자재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주체문학예술의 전도는 학예의 양양하다는 확신이 차넘쳤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승려 김정은시대를 승려 김정은의 최전성기로 빛내일 결의에 총망미되어있었다.

대회에서는 당에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장내에서는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주체문학예술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의 정열한 대진군을 힘있게 떠밀어 나갈 창작가, 예술인들의 언약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21세기 선군혁명문학예술발전이 획기적전반의 리정표를 아로새긴 대회합으로 빛날것이다.》

대회의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은동지께서 마련하신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전통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문학예술의 현제이며 자재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주체문학예술의 전도는 학예의 양양하다는 확신이 차넘쳤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승려 김정은시대를 승려 김정은의 최전성기로 빛내일 결의에 총망미되어있었다.

대회에서는 당에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장내에서는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주체문학예술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의 정열한 대진군을 힘있게 떠밀어 나갈 창작가, 예술인들의 언약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21세기 선군혁명문학예술발전이 획기적전반의 리정표를 아로새긴 대회합으로 빛날것이다.》

대회의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은동지께서 마련하신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전통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문학예술의 현제이며 자재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주체문학예술의 전도는 학예의 양양하다는 확신이 차넘쳤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승려 김정은시대를 승려 김정은의 최전성기로 빛내일 결의에 총망미되어있었다.

대회에서는 당에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장내에서는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주체문학예술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의 정열한 대진군을 힘있게 떠밀어 나갈 창작가, 예술인들의 언약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21세기 선군혁명문학예술발전이 획기적전반의 리정표를 아로새긴 대회합으로 빛날것이다.》

대회의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은동지께서 마련하신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전통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문학예술의 현제이며 자재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주체문학예술의 전도는 학예의 양양하다는 확신이 차넘쳤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승려 김정은시대를 승려 김정은의 최전성기로 빛내일 결의에 총망미되어있었다.

대회에서는 당에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장내에서는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주체문학예술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의 정열한 대진군을 힘있게 떠밀어 나갈 창작가, 예술인들의 언약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21세기 선군혁명문학예술발전이 획기적전반의 리정표를 아로새긴 대회합으로 빛날것이다.》

대회의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은동지께서 마련하신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전통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문학예술의 현제이며 자재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주체문학예술의 전도는 학예의 양양하다는 확신이 차넘쳤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승려 김정은시대를 승려 김정은의 최전성기로 빛내일 결의에 총망미되어있었다.

대회에서는 당에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장내에서는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주체문학예술의 위력을 높이 떨치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의 정열한 대진군을 힘있게 떠밀어 나갈 창작가, 예술인들의 언약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21세기 선군혁명문학예술발전이 획기적전반의 리정표를 아로새긴 대회합으로 빛날것이다.》

대회의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은동지께서 마련하신 주체문학예술의 빛나는 전통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문학예술의 현제이며 자재로운 스승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주체문학예술의 전도는 학예의 양양하다는 확신이 차넘쳤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승려 김정은시대를 승려 김정은의 최전성기로 빛내일 결의에 총망미되어있었다.

인민의 참된 삶이 꽃피는 사회주의조선

외국인들의 반향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 주적이여 창조적인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궁지에 넘친 행복복한 모습을 목격할 외국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공공회화구 정부대표단 단장 카르소 장 클로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방문기간 목격한 모든것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김일성 주석께서와 김정은 동지께서와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것으로 되도록 하였다.

이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중국 김립성가무단 단장 주국서는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조선의 사회제도가 인민을 위한 제도라는것을 깊이 느꼈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인도네시아 피티 수스리 유니 온화사 사장 스티라 수나르디는 흥분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조선인민은 누구나 주권행사 에 당당히 참가하고있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것이 조선의 참모습이다.

조선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 하고있는 비결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가장 우월한 이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았다.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묻혀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알하산 맬렘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더 욱 부강발전하리라는것을 확신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주체전축의 발전면모를 파시하며 로동당 시대의 선경으로 솟아 행복의 웃음소리 차넘치는 미림승마구락부를 참관한 외국인들이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중국대의문화집단공사 당시기 송관림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 인민의 락원된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미림승마구락부는 그 규모와 형식에 있어서 세계적인 봉사기 지이다.

승마장에서 말을 타며 한껏 즐기는 조선인민의 모습에서 이들의 행복찬 삶을 그려보았다.

이렇게 훌륭한 구락부를 세워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경의를 드린다.

로씨야제사상연구협회대표 단 단장 드미트리 포스넨코는 미림승마구락부가 평범한 인민들을 위하여 건설되었다, 이렇게 멋있게 훌륭한 곳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니 얼마나 행복할지 인민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조선인민은 자기 령도자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그들의 절제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끝없이 융성번영할것이다.

부강조국건설에 혁신의 기술발명을

주체비료생산 1.7배이상 장성

화학공업부문에서

화학공업성 일군들의 일보세가 간단치 않다. 이들은 올해 영농비료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 돌고있다. 책임일군들부터가 비료생산으로 들끓는 현장들에 자주 내려가 화산식정지시업을 활발히 벌리는 한편 결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따르라고고있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설비반리, 기술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선관공급직장, 성형직장, 발생로직장의 종업원들은 생산의 선봉정성을 맡아나섰다는 책임감을 안고 이악한 투쟁을 벌려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있다. 조작공들은 자기들의 기술능수준을 한계만 더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수시로 변화되는 생산정황을 보다 능숙히 처리해나갈수 있게 준비하고있다.

입출직장직, 3배로정직과 압모니아, 노소비료생산, 출하공급을 맡은 단위들의 로동계급도 공정간 협동을 강화하고 생산의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고있다. 실적을 올리고있다.

사회주의농업전선에 탄약을 공급하는 병기장을 지켜주는 자각은 홍남비료연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심장마다에서도 불길처럼 타오르고있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결사의 의지로 뚫고헤쳐나고 있다. 불길은 연합기업소의 생산현장들과 련관된

창고는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비료생산에 전례없는 양상을 일깨워주고 있다.

발생로직장, 노소직장 종업원들은 자력경쟁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어떤 조건과 정황속에서도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주체비료생산에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원로직장, 1, 2 합성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은 세차게 지퍼올리며 집단적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누에치기강도에

자강도에서

자강도에서 봄누에치기가 시작되었다. 점도, 비단도로 전변된 자강도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올해 지난해보다 점포당 1.6배나 많은 누에고치를 생산할 목표를 내세우고 년초부터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도의 점포부 일군들과 농민로동자들은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 수천정보에 달하는 방밭에 질풍을 내세우고 봄누에치기를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도에서는 누에치기준비에도 큰 힘을 넣었다.

시작

점포부 일군들은

업에 조개가 깊고 경험이 풍부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누에를 튼튼하게 키울수 있는 여러가지 영양참가제에 도입을 보장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점포부 일군들은 올해 누에고치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기 위해 기술지도를 실속있게 짜고있고있다. 이들은 1만 수천부에 달하는 점포기술지도서를 만들어 점포전문농장, 고지농장, 협동농장들의 점포작업반, 점포부조를 보내주어 봄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기로 하고있다. 이와 함께 점

포전문농장 일군들은 만로고지농장, 성간군 성화협동농장 점포작업반, 자강군 농장 점포작업반을 전형단위로 내세우고 모든 단위들이 이 단위를 따라나서기 위한 경쟁열풍을 일으켜 누에고치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특장지구 탄광 연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펼쳐나신 특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매월 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선관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탄광을 내러가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짜고들며 새로운 기술혁신을 대담하게 받아들여 더욱 하리대 힘을 넣고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탄부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불려일키기 위해 행, 행정일군들로 중대, 소대들에 대한 분담제를 실시하고 전투조직과 실적총화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지난해 탄광에 판정식공배를 받아들여 로력, 자재를 절약하고 설비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선관생산성을 1.2배로 끌어올린 경험에 기초하여 이 성과를 모든 탄광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결과 연합기업소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현재까지 4대의 판정식공배를 받아들인 명학탄광에

이어 다른 탄광에서도 그 큰 배아를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골조를 확고히 앞세우는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탄광들에서 작업결집정기를 조직하여 예비제 탄광을 넘겨나기 위한 사업도 잘해나가고있다. 일군들의 치열한 생산조직과 지휘에 의해 연합기업소내 200대의 탄차와 전차선, 탄차바퀴, 1만개 이상의 메루뭇을 생산하여 탄광들에 보내주었다. 공장의 로동자들은 이밖에 많은 소공품들을 보장해주어 연합기업소적인 선관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선군조선의 비약의 기상, 새로운 진군속도를 힘있게 과시하며 위성과학자거건설이 본격적인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한 평 명 찍음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놓으신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나리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높이 울려 퍼지게 하시여

은 나라 천만군민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제 9차 전국예술인 대회, 고난과 시련이 엄혹할수록 혁명적열정과 신념이 넘쳐 역세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상을 떨친 역사적 회합이다.

대회를 더욱 뜻깊게 한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서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를 보내신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서한을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들인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의 문학예술부문 지도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부문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 주체적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갈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어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내 조국의 현실은 참으로 긍지롭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인 노래는 투쟁의 대오에 높이 울리는 전군가이며 시대의 행진곡이다.》

우리 혁명은 노래와 함께 시작되고 노래와 함께 전진하며 승리를 펼쳐온 혁명이다.

오늘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음악과 노래들이 강성국가건설전진군열에 메아리쳐 천만군민을 투쟁과 위훈에로 부르르고있다. 만단사연이 돌이켜진다.

몇해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어느 한 기회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음악정치에 대한 뜻을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닌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공훈국가합창단의 방사포일제사격과 같은 혁명군가로 천만군민을 불리워 오켜 우리 혁명대에 조성된 난국을 타개해나가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첫사랑은 음악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음악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혁명적열정과 아름다움 정서를 안겨주는 고상한 예술이다. 싸움은 감정정서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지 무기가 하는것이 아니라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의 말씀을 되새길수록 우리의 마음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없없이 달린다.

음악정치! 선군정치와 함께 또 하나의 역사적인 정치경륜을 펼쳐시어 천만군민의 노래소리높이 역세게 전진하는 비찬 현실을 펼쳐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이 찬란을 금할수 없다.

일찍이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 《축복의 노래》를 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을 빛내신 의지를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 담으시어 이 땅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시였다.

그날 《예술은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있는 무기이다.》라는 명언을 제시하시고 정력적인 영도로 힘찬 전진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메아리쳐 하시면서 이 땅을 밝히신 위대한 장군님이다.

선군혁명천리길에 헤치시는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소의 병사들에게 안고가신것은 크나큰 사랑, 믿음과 함께 노래였다. 자강도를 찾은 때에도 공훈국가합창단의 노래가 자강도를 휘훈들게 하고 온 나라에 승리의 전군가가 더 높이 울려 퍼지도록 하시면서 오늘도 천만의 가슴을 격동시키고있다.

공훈국가합창단을 선군시대 최고사령부의 나팔수로 내세우시고 온 나라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음악정치의 위력은 실로 경이적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꾼들에게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비롯하여 인민군대의 예술공연을 많이 보여 주신것은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 주자는데 기본목적이 있다고 의미깊은 말씀하시였다. 바로 그래서였다.

고난과 시련이 아무리 엄혹해도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기어이 승리를 떨치실 의지를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나라에 투쟁과 전진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지도록 이끄시였다.

고난의 행군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조신식철학, 조신식음악철학이 있다고 하시면서 음악은 사람들에게 생의 희열과 혁명적열정을 안겨주고 그들을 투쟁과 위훈에로 불리워 오시는 혁명과 건설의 힘있는 무기이라고, 투쟁속에 노래가 있고 노래소리 높이는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고 선언하시였다.

가는 길 힘찬해도 투쟁의 노래 높이 부르며 승리의 새날을 이 땅에 펼쳐서 그토록 헌신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뜻과 업적을 전하며 그날의 말씀은 오늘도 천만의 심장마다에 불을 달아주고 있다.

언제인가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래소리가 높은 곳에 혁명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것은 하나의 진리이 라고 하시며 이것이 바로 자신적 말 하는 노래의 철학이라고 심오한 철리를 밝혀주시였다.

노래소리 높이는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뒤새길수록 항일의 피어린 전진들과 가멸적절한 전화의 격전장에서 원수님을 일 때 세우시고 조국을 울려 퍼지도록 하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뜻과 업적을 전하며 그날의 말씀은 오늘도 천만의 심장마다에 불을 달아주고 있다.

《가는 길 힘찬해도 웃으며 가자!》 선군혁명영도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엄혹한 난관이 또다시 닥쳐들다면 자신께서는 이 락관의 구조를 들고 오 앞장에 섰기 라고 선언하시였다.

선군혁명의 천리전진길이 편편히 어려워진다. 조국수호의 전초진들을 찾고찾으시는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도 들으시고 선창으로 박수를 쳐주시며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

를 높이 부르며 병사시절을 빛내이는 그들을 치하시였다. 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병사들의 그 노래를 추억하시며 그들이 오늘은 초소에서 노래를 부르지만 결전의 마당에 서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지켜 싸울것이라고 믿음직한 말씀을 하시였다.

정력적인 영도의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작들과 끝까지 싸워 단연 결판을 벌여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시금 고귀한 지침을 밝혀주시였다.

투쟁속에 노래가 있고 노래소리 높이는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혁명의 길에 시련의 천만고비가 앞을 막아도 투쟁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승리를 떨치실 백두산강군의 신념을 파시하며 혁명군가는 선군혁명천리길위에 승리의 전군가로 메아리치였다.

그처럼 준엄하고 힘찬하였던 고난과 시련의 천만고비를 선군정치와 함께 또 하나의 위대한 음악정치로 부셔버리고 붉은기를 수호하신 바로 여기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이 있고 영도업적의 위대성이 있다.

음악을 정치의 위력한 수단으로, 무기로 틀어쥐고 그 위력으로 혁명의 시련을 부시고 승리를 떨치신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은 정령 절세의 위인, 탁월한 정치가이다.

그토록 긍지스러운 력사가 또 한번의 걸출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혁명의 세대와 년대를 이어 힘차게 흐르고 있다.

한편의 영화나 한권의 글, 한곡의 노래가 수천의 식량이나 수만발의 포탄을 대신할수 있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다.

열렬한 그 뜻에 떠받들려 우렁찬 전군가가 강성국가건설전투장들에 메아리친다.

이 땅의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하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기어이 최후의 승리를 떨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인 선

를 높이 부르며 병사시절을 빛내이는 그들을 치하시였다. 후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병사들의 그 노래를 추억하시며 그들이 오늘은 초소에서 노래를 부르지만 결전의 마당에 서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지켜 싸울것이라고 믿음직한 말씀을 하시였다.

정력적인 영도의 그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여도 작들과 끝까지 싸워 단연 결판을 벌여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다시금 고귀한 지침을 밝혀주시였다.

투쟁속에 노래가 있고 노래소리 높이는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다! 혁명의 길에 시련의 천만고비가 앞을 막아도 투쟁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승리를 떨치실 백두산강군의 신념을 파시하며 혁명군가는 선군혁명천리길위에 승리의 전군가로 메아리치였다.

그처럼 준엄하고 힘찬하였던 고난과 시련의 천만고비를 선군정치와 함께 또 하나의 위대한 음악정치로 부셔버리고 붉은기를 수호하신 바로 여기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이 있고 영도업적의 위대성이 있다.

음악을 정치의 위력한 수단으로, 무기로 틀어쥐고 그 위력으로 혁명의 시련을 부시고 승리를 떨치신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은 정령 절세의 위인, 탁월한 정치가이다.

그토록 긍지스러운 력사가 또 한번의 걸출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혁명의 세대와 년대를 이어 힘차게 흐르고 있다.

한편의 영화나 한권의 글, 한곡의 노래가 수천의 식량이나 수만발의 포탄을 대신할수 있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다.

열렬한 그 뜻에 떠받들려 우렁찬 전군가가 강성국가건설전투장들에 메아리친다.

이 땅의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하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기어이 최후의 승리를 떨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인 선

사상전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추동하는 혁명적문학예술의 위력을 절감할수록 1970년대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진 력사의 갈래에 새겨진 잊지 못할 이야기가 돌이켜진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1970년대에 우리의 문학예술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주제 59(1970)년 7월 어느날에 있는 일이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화부문의 한 연출가를 전화로 찾으시였다. 송수화기를 든 연출가는 위대한 장군님께 뒤늦게야 전화를 받게 된데 대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렸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쌓이신 피로도 잊으실것을 무시한가 하시며 전화가 잘 들리라고 다정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전화가 잘 들리다는 그의 말에 그이께서는 어찌 위대한 수령님께서 예술화 《사랑애》에 있는 일화를 보시고 영화를 경회극적으로 재미있게 잘 만들었다고 교시하시였다는데 대하여 알려주시였다.

어머 이수형님께 기쁨을 드렸다는것으로 하여 연출가는 세한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그의 심정을 헤아려보 신듯 잠시 동안은 두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때마지막에 대사 하나를 보충해야 하겠다고 하시며 차근차근 일러 주시였다.

거리가 먼데 말이 잘 들리는가고 다시 물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리우신 영화의

대사를 거듭 반복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대사를 쓰시면 작가동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시더니 작가가 지금 평양에 있는가, 작가가 없다면 연출가동무가 그 내용을 가지고 대사를 한번 써보지 않겠는가 물으시였다.

연출가는 한번 써보겠다고 힘있게 말씀드렸다.

그럼 연출가동무가 써보라고 하시며 대없이 대개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문득 말머리를 돌리시어 지금 평양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물으시였다. 그의 말을 통하여 여전히 비가 내리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비가 오면 보충촬영을 할수 없지 않겠는가 걱정하시였다. 기어이 해내겠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대본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하여 알아 보시였다.

몇분후 다시 전화를 걸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연출대본을 그렇게 보어 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본을 잘 보충하였다고 치하시면서 확신에 넘치신 음성으로 그대로 찍어 오실것으로 하겠다고 이르시고서야 전화를 끝내시였다.

전화는 끝났으나 그의 머리속에는 오래도록 우리 장군님의 친근하신 음성이라 떠나갈 못했다.

절세위인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 그 예술영화는 관객들의 절찬을 받는 훌륭한 영화로 창작되였다.

1970년대를 격동시킨 한편의 영화들은 이렇게 완성되였다.

본사기자 리 금 분

본사기자 리 금 분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전하는 이야기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감동깊은 창작경위는 영화와 출판물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있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보급과정에도 이에 못지 않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깃들여있다.

해방후의 환경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장편서사시 《백두산》이 그처럼 빨리, 그리고 광범하게 인민들의 마음속에 가닿고 그들의 심장에 깊이 뿌리내릴수 있었는가.

창조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사실상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력사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첫 독자는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장편서사시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 미칠 거대한 영향력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장편서사시를 《로동신문》을 통하여 보급할데 대한 귀중한 지침을 주시였다. 하지만 문학예술부문과 신문

부문에 들고있었던 일부 반당파분자들은 다른 나라들의 당파에서는 시작물을 내지 않는다고 구실을 대면서 서사시의 발표를 방해하고있었다.

이 사실을 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과 같은 장편서사시는 《로동신문》에 내야 한다고, 즉 우리 당의 혁명정통을 주제로 한 작품을 당기편지에 내지 못하겠다는고, 남이 어떻게 하는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면 되는것이라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백두산》과 같은 장편서사시를 당기편지에 내면 항일유격대의 혁명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시를 빨리 신문에도 내고 방송으로도 전하면서 시적으로도 출판하여 인민들속에 널리 선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 의하여 《로동신문》에 편제된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사람들의 심정을 완전히 들어잡고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우리 당의 진군로선을 반대하던 반당파분자들은 다른자

들을 내세워 부당한 평론까지 내내 작품을 매장시켜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자들은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놓고 시비하다 못해 나중에 철호차 정치공작원감치 않으나, 꽃본이의 말이 불건너서 말처럼 표현되였다는니, 우리 민족의 모든 투쟁을 개팔하지 못했더니 하며 생억지를 부리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의 정치적본질을 예리하게 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날 장편서사시 《백두산》을 우리 당에서 옹호해주어야 한다고, 이 시를 옹호하는것은 단순히 하나의 문학작품을 지지하는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시 《백두산》을 지지하고 옹호하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정통,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정통을 옹호하는것으로 된다는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당한 평론을 하지 못하게 《백두산》을 출간하는 글을 하나 잘 써서 내도록 해야 하겠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산》은 해방된

조선의 문단이 낳은 대걸작이라고, 이것은 세계에 내놓고도 널리 자랑할만 한 일이라고, 시인이 혁명전통의 본질을 출세 리해하고 시를 썼기때문에 인물들의 행동과 대화, 작가의 주장토로가 정당한 논리의 힘을 가지고 독자들로 흥분시켰다고 하시며 평론의 집필방향과 방도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그러하여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백두의 눈보라처럼 인민들의 심장에 단숨에 가닿고 백두의 넘과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게 하였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창작과정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은 혁명적문학예술건설과 출판보도활동에서 틀어쥐고나야 할 생명선으로 되였다.

그리고 장편서사시 《백두산》은 우리 인민이 가멸한 전화의 나날에는 불굴의 용사가 되고 간고한 전후복구건설시기에는 자력갱생의 기수가 되게 하였으며 혁명의 년대들에서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되게 한 말 없는 스승으로 되였다.

본사기자 정 선 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더 훌륭한 창작성품으로 빛내여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 피 바다가 극 단에서 -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진실한 생활속에 문학이 있고 예술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진실한 생활속에서만 창조될수 있다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있다.

문학과 예술은 인간과 그 생활을 묘사대상으로 하는 사회의식의 한 형태이다.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형상적회복을 통하여 의의있는 인간관계, 사회적문제를 밝혀냄으로써 새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힘있게 불리워 오키는 데 문학예술의 참다운 가치가 있고 생명력이 있다. 모든 문학예술작품의 시작점과 종착점은 어디까지나 인간 생활이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의 진실성은 곧 신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형상하는가 하는데 있으며 이것은 창작가들이 현실에 대한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였는가에 따라 좌우되게 된다.

들리는 현실은 창작의 토양이며 창조적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활무대이다. 아무리 재능과 능력이 있어도 창작가라고 하여도 타성문학, 위계문학을 하여서는 곤로하는 인민들의 방만적이며 전투적인

생활, 산 인간들의 모습을 진실하게 그려낼수 없으며 이런 작품은 백건, 천건이 나온다고 하여도 인식교양적가치를 잃은 불량품으로밖에 될수 없다. 현실을 떠난 그 어떤 매력있는 형상, 생활을 외면한 작이란 있을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찍이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시던 나날에 창조에 도움을 주는 진실한 화구와 환상은 생활속에서만 생겨날수 있다고 하시면서 작가들은 생활에서 참다운 가치를 있고 생명의 깊이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창작가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약동하는 현실을 똑똑히 느낄수 있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다운 모습을 볼수 있으며 그속에서 의미있는 종자를 찾아내고 그것을 파괴위 시대의 의지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을 창조할수 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는 서정시 《나의 위대한 조국》, 노래 《내 나라 내 제일로 좋아》,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등이 그렇게 창작되었고 예술영화 《꽃피는 마을》, 《이 세상 끝까지》, 《보통》, 《도라지꽃》, 《생의 흔적》 등 현실주의적 화들의 명화면, 명대사들도 작가들의 실생활체험과정에 창작된 결과물이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하여주시던 《소련》의 창작과정은 창작가들이 들리는 생활에서 실재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창작형상한 작품으로서 가족사건이라는 자그마한 세부로 영도자와 인민이 현연의 정으로 굳게 결속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생동하게 투시해볼수 있게 하는 훌륭한 작품이다. 회화발전소 건설의 완공을 앞당기려는 진인간적시향을 바탕으로 하여 시대의 본질, 우리 생활의 본질을

올 수 경

훌륭히 밝혀낸 독연 《소련》의 작품의 창작과정은 의의있는 종자, 시대의 명작은 책상우에서가 아니라 들리는 현실속에 창조될수 있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의 정당성을 다시금 실증해 주고있다.

창조와 혁신으로 들리는 보람찬 오늘의 현실에는 작가들을 끌어들여 흥분시키며 창조적경감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가치있는 소재가 수없이 많다. 이 막대한 현실을 생동한 화음으로 그려냄으로써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리워 오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창작가, 예술인들앞에 나서고있다.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심장깊이 새기고 그로 하여 창작형상한 작품으로서 가족사건이라는 자그마한 세부로 영도자와 인민이 현연의 정으로 굳게 결속된 우리 사회의 진면모를 생동하게 투시해볼수 있게 하는 훌륭한 작품이다. 회화발전소 건설의 완공을 앞당기려는 진인간적시향을 바탕으로 하여 시대의 본질, 우리 생활의 본질을

주체예술의 대화원을 펼치시던 나날에

주제 63(1974)년 2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예술단체의 남성창조 몇몇 성원들을 몸가까이 부르시

나

당의 믿음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당과 수령을 옹위하는 한길에서 금과 같이 변치 말고 초침과 같이 하여 인민이나 뜻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 하시였다.

민

당과 수령을 옹위하는 길에서 금과 같이 변치 말고 초침과 같이 전진만 하라!

음

그때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조선인민군 지휘부원들과 담화하시면서 얼마전에 노래 경진된 사고, 수박절할기식현실체

주제 63(1974)년 3월 증은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단 위에서 준비한 무용소품들을 지도해주시기 위하여 극장을 찾으시였다.

점

안무가들과 인사를 나누신 그이께서는 일이 바빠서 좀 늦게 나왔다고 하시며 어시 준비한 소품들을 보라고 하시

심

때는 낮 1시, 점심식사시간이었다. 그래서 한 책임일꾼이 점심식사를 하고 휴식하신 다음에 바쁘시던 중정다는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말씀드리였다.

연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자신께서는 여기에 나와 동무들이 만든 무용소품을 보는것이 더 좋다고 하시며 좋은 본다면 먹지 않아도 배부렀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창조사업을 보살펴주시기 위하여 점심시간마저 바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자애롭고 기대에 넘친 말씀을 들으며 창작가, 예술인들의 가슴속에는 충정의 결이 맺어진다.

본사기자 한 영 민

연제인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회극 《축복》을 보아주시던 자리에서였다.

극장을 떠나시기에 앞서 작품에 대한 과분한 평가를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잠시 경회극의 작가를 대견히 바라보시

간

가 더 좋은 작품을 쓰고 또 만 나라고 하시며 그의 손을 꼭 잡게 잡아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우리가 인민적원전진조를 필히 새끼기때문에 이런 좋은 작품을 내놓을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훌륭한 예술작품이 나오자면 무엇이 보라도 좋은 소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소

일꾼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우리는 조선 4.25 예술영화화형소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좋은 창작 소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도 올해에 더 잘하여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이끄는 데 계속하여야 한다는 가슴뜨거운 말씀을 남기시고 또다시 선군길을 이어가시였다.

재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시는 선군길의 걸음걸음이 그대로 시대의 명작을 낳는 위대한 로정이라는 진리를 새겨 주셨다는 그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렸다.

본사기자 리 영 민

송고한 애국의 세계가 빛발치는 조선의 국화—목란꽃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목란꽃은 우리 인민이 제일 사랑하는 국화입니다.》

목란은 우리 나라의 일부 북부지대를 제외한 각지의 산골짜기, 산중턱 등 습한 곳에서 자라는 일지는 떨기나무 또는 키나무이다.

목란꽃은 하얀 잎이 튼튼하고 크고 두터우며 향기가 독특한 아름다운 꽃잎이나 열매도 맛과 생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꽃가운데서 왕이라고 할 수 있다.

꽃피는 때면 그 아름다움과 향기로 기쁨을 더해주고 잎이 무성할 때면 푸르싱싱한 기상으로 활력을 더해줌으로써 오목백과 물결치는 가을이든 봄만한 열매로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는 목란, 정방산의 깊은 곳에서 피어나던 평범한 꽃이 오목백처럼 사람들의 기쁨이 되며 목란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조선의 국화

로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된다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 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어느 봄날 정방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창덕학교시절 이곳에 오시어 보시었던 아름다운 흰꽃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내 조국의 한송이 꽃을 보시고서도 조국과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꽃의 특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셨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꽃나무의 줄기액과 잎생김새 등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서 꼭 찾아내어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당시 이 지방에서 함박꽃이라고 부르던 그 꽃나무는 5~6월에 가지끝에 크고 흰 향기로운 꽃이 피며 나무줄기는 제멋

이 도는 흰색이고 잎은 어긋나게 붙고 넓고 두터운데 달걀모양이었다.

미처 꽃을 찾아볼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던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정을 천심으로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처럼 가슴뜨거워 오름을 금치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수년전 세월 어버이수령님의 추억속에 아름답게 간직되어있던 그 꽃나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타는 충정에 의하여 마침내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었다.

그후 일군들이 찾아낸 꽃나무를 보아주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나무가 훌륭하고, 이제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라고, 꽃이 소박하고 고상한 맛이 있어 조선인민의 슬기로운 기상을 그대로 담은것 같은 훌륭한 꽃이라고 하시면서 산에서 싸올 때에도 늘 이 꽃을 생각하며 조

국을 그려보곤 하였다고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한없이 소박하면서도 슬기롭고 역센 우리 인민의 기상이 어려오는 꽃나무, 흰색같이 깨끗하면서 또 굳센 인상을 안겨주는 꽃, 상고하고 그윽한 향기... 생각만 해도 그 의미가 뜨겁게 추억되면서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에 더 많이 심고 잘 관리할데 대한 목란꽃을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내 조국의 나무처럼, 풀 한 포기도 다 가슴에 품어안고 뜨겁게 덤퍼주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의 뜻은 오늘날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고있다.

강철줄, 강구철동무들 비롯한 정방산유원지관리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여있는 목란꽃나무를 잘 관리하는 한편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귀리와 공원들에 널리 심기 위한 사업에 전심을 바쳐가고있다.

진정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국화들은 많지만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인민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오늘날도 열일도 열한 조선의 국화로 자랑될치는 목란꽃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꽃은 아마도 세상에 없을 것이다.

우리 인민은 절세의 위인들의 열렬한 조국애에 떠받들려 이 땅에 더욱더 만발하는 목란꽃을 조선의 국화로 열렬히 사랑하며 온 나라에 목란꽃화원을 끊임없이 펼쳐갈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옥별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남, 녀경기를 두고

유한대 기초하여 방에서 공격이행속도를 높이며서 득점회를 무한히 마련하는 과정에 5번 안일법선수의 세차있는 빼돌기에 의한 문전전발이 20번 서원속선수의 머리발기로 득점되는 것들처럼 활장면을 펼쳐보였다.

이날 경기에서는 4.25팀이 압록강팀을 1:0으로 이겼다.

책임감독 안창남, 감독 권봉준동무를 비롯한 감독들은 세계 축구발전추세와 개별적선수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식의 과학적인 훈련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모든 선수들이 훈련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사업을 짜고들어 내밀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육체적 준비가 안바침되지 못하면 경기에서 전술적도기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명심한 감독들은 육체적준비를 튼튼히 하는데 모를 박았다.

또한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관계에 훈련에서 과학화를 확고히 실현하여 선수들이 높은 육체적능력을 소유하고 전술적으로 도에 맞게 경기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게 하였다.

모든 선수들은 높은 목표를 세우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경기마다에서 맞닥뜨린들을 무조건 이기겠다는 야심만만한 기세로 높이 훈련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였다.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남자결승경기에서 참가한 4.25팀 선수들은 지난 시 국제, 국내경기들과 꾸준한 훈련과정에 더욱 세련된 축구기술을 잘 보여지면서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하여 관중의 이목을 끌었다.

유한대 기초하여 방에서 공격이행속도를 높이며서 득점회를 무한히 마련하는 과정에 5번 안일법선수의 세차있는 빼돌기에 의한 문전전발이 20번 서원속선수의 머리발기로 득점되는 것들처럼 활장면을 펼쳐보였다.

이날 경기에서는 4.25팀이 압록강팀을 1:0으로 이겼다.

책임감독 안창남, 감독 권봉준동무를 비롯한 감독들은 세계 축구발전추세와 개별적선수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식의 과학적인 훈련계획을 세운데 기초하여 모든 선수들이 훈련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도록 사업을 짜고들어 내밀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육체적 준비가 안바침되지 못하면 경기에서 전술적도기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명심한 감독들은 육체적준비를 튼튼히 하는데 모를 박았다.

또한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관계에 훈련에서 과학화를 확고히 실현하여 선수들이 높은 육체적능력을 소유하고 전술적으로 도에 맞게 경기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게 하였다.

모든 선수들은 높은 목표를 세우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경기마다에서 맞닥뜨린들을 무조건 이기겠다는 야심만만한 기세로 높이 훈련에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였다.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남자결승경기에서 참가한 4.25팀 선수들은 지난 시 국제, 국내경기들과 꾸준한 훈련과정에 더욱 세련된 축구기술을 잘 보여지면서 경기를 박력있게 운영하여 관중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13일 청춘거리 서산속 구경기장에서는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녀자결승경기가 진행되었다.

4.25팀과 소백수림사이에서 진행된 결승경기는 3:3으로 비긴 가운데 승부가 나지 않아 11m승부차기로 이어져 수많은 관중의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경기에서는 평시에 만나면 높은 기세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7:5라는 점수차이로 4.25팀이 승리하게 되었다.

책임감독 한성철동무를 비롯한 감독, 연구사들은 녀성들의 육체적특성을 과학기술적으로 분석평가한데 기초하여 훈련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하도 빠짐없이 수행하도록 하는데 사업의 중심을 두었다.

4.25팀의 녀자축구선수들은 이악하게 훈련하여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경기들에서도 패권을 쥐려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훈련의 날과 달을 보내왔다.

이번 경기에서도 전명화, 김충심동무들은 빠른 속도에 의한 1대1 돌파, 재치있는 빼돌기에 의한 문전결속 등으로 많은 득점을 하였으며 조음미동무는 민첩한 정황판단과 대담한 결선택으로 팀의 문을 첩벽으로 지켜냈다.

그밖의 선수들도 평시에 편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팀이 1위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이번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남, 녀경기는 온 나라에 축구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키고 모든 팀 선수들이 많은 경험들을 쌓게 하는 동시에 신진선수들의 담도 키워주는 계기로 되었다.

지 혁 철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람들의 사상과 심장을 움직이는 예술은 세계를 변화하는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천리마시대를 진감했던 《산울림》의 메아리는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질풍같이 내달리는 오늘의 선군시대에도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을 무한히 격동시키며 끝없이 울려지고있다.

경희국 《산울림》은 주제 50(1961)년에 창작된 작품이다.

작품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며 계속적인, 계속혁신해나가는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불굴의 투쟁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였다.

정적적대가 뚜렷하고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생동하게 반영한 경희국은 우리 인민을 기적과 위훈창조로 힘있게 추동해주었다.

조합을 천리마시대의 리상촌으로 전진시키려는 제대군인년 황성철의 꿈과 리상, 그가 리한 《산울림》에 한마음한뜻으로 화답해나서는 새 세대 청년들과 마을사람들, 그런가하면 소극성과 보수주의

의에 사로잡혀 발머리들각같이 나 들어내고 토지리용품을 높이는것으로 만족해하는 관리위원장과 작업반장, 경희국 《산울림》에는 어제 날만이나 아니라 오늘의 투쟁과 생활속에서 진리로 삼아야 할 의미있는 사상이 담겨져 있다.

—혼자의 목소리는 작은 단락

세기를 이어 울려 퍼지는 《산울림》의 메아리

경희국 《산울림》은 주제 50(1961)년에 창작된 작품이다.

작품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며 계속적인, 계속혁신해나가는 천리마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불굴의 투쟁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였다.

정적적대가 뚜렷하고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생동하게 반영한 경희국은 우리 인민을 기적과 위훈창조로 힘있게 추동해주었다.

조합을 천리마시대의 리상촌으로 전진시키려는 제대군인년 황성철의 꿈과 리상, 그가 리한 《산울림》에 한마음한뜻으로 화답해나서는 새 세대 청년들과 마을사람들, 그런가하면 소극성과 보수주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국립연극단에서 새로 창조한 경희국 《산울림》을 오늘의 시대에도 손색없는 작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교양에서 훌륭한 교본으로 되는 작품이라는 최상의 평가를 안겨주시었다.

경희국 《산울림》에 담긴 진심오인 사상은 오늘날의 우리 시대, 오늘의 우리 생활, 아름다운 천리마시대 《산울림》의 메아리를 오늘도 선군시대 《산울림》의 메아리로 높이 울리게 하여주시었다.

개성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숭고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펼쳐나서 민족유산보호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고있다.

지남에서 참가하여 진행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 제37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개성시의 역사유적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된 이후 개성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들에 표시비를 붙여왔게 만들어 새워놓았다.

개성시당위원회와 개성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표시비를 만들어 새우는데 필요한 석재와 세멘트를 비롯하여 많은 건설용자재들을 확보하여 해당 부문과 관련단위의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표시비를 세우도록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었다. 홍순도, 김철만동무를 비롯한 개성시의 민족유산보호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시간의 근로자들과 힘을 합쳐 표시비를 짧은 기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국립연극단에서 새로 창조한 경희국 《산울림》을 오늘의 시대에도 손색없는 작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교양에서 훌륭한 교본으로 되는 작품이라는 최상의 평가를 안겨주시었다.

경희국 《산울림》에 담긴 진심오인 사상은 오늘날의 우리 시대, 오늘의 우리 생활, 아름다운 천리마시대 《산울림》의 메아리를 오늘도 선군시대 《산울림》의 메아리로 높이 울리게 하여주시었다.

개성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숭고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펼쳐나서 민족유산보호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고있다.

지남에서 참가하여 진행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 제37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개성시의 역사유적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된 이후 개성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들에 표시비를 붙여왔게 만들어 새워놓았다.

개성시당위원회와 개성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표시비를 만들어 새우는데 필요한 석재와 세멘트를 비롯하여 많은 건설용자재들을 확보하여 해당 부문과 관련단위의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표시비를 세우도록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었다. 홍순도, 김철만동무를 비롯한 개성시의 민족유산보호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시간의 근로자들과 힘을 합쳐 표시비를 짧은 기간

최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에서 고구려벽화무덤을 새로 발굴하였다.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것만큼 평양일대에는 고구려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많습니다.》

벽화무덤은 호남리 평대산의 남쪽기슭에 자리잡고있다. 무덤 주변에는 호남리사신무덤과 토포리사신무덤을 비롯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있는 고구려무덤들이 분포되어있다.

새로 발굴된 벽화무덤은 전형적인 고구려양식의 돌칸흙무덤으로서 무덤길과 안길, 주검칸으로 이루어진 지상식의 외관무덤이다.

무덤길은 남북으로 길게 나있었는데 발굴당시 여기에는 막돌들이 짝 채워져있었다. 안길은 주검칸남쪽중심에 나있으며 천정은 평평하다.

주검칸은 평면이 남북으로 긴

새로 발굴된 호남리벽화무덤

장방형으로 되어있다. 주검칸바닥에는 솟을 피고 그우에 돌과 흙을 섞어 기초다짐을 한 다음 그우에 5cm의 두께로 회미장을 하였다.

벽화는 다듬은 돌로 견고하게 쌓고 결면에 회미장을 매끈하게 하였으며 천정은 평형고임2단과 삼각고임2단에서 막음들을 덮었던것인데 막음들은 류질되었다.

바닥에는 2개의 판대가 놓여 있다.

안길벽에 있는 벽화에는 붉은 바탕의 선들이 남아있고 주검칸 내벽에는 붉은색, 풀색, 붉은밤색, 검은색 등의 색깔들로 그려진 사신도가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천정의 평형고임면에는 인동형문양들이 그려져있으며 삼각고임면에는 별그림이 그려져있다. 바닥에 떨어진 회벽조각들에서도 청룡의 몸체, 넝쿨무늬, 붉은 꽃무늬, 고리무늬 등이 그려진것을 찾아볼수 있었다.

이번에 발굴된 무덤벽화에서

우리들의 꿈과 리상을 그대로 담고 보다 의미있는 사상의 메아리로 울려지고있다.

《산울림》의 메아리에 화답해나선 우리 인민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으며 서로 돕고 이르는 화북한 대가정에서 더욱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를 개구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새 세대 청년들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열매세우고있으며 그속에 우리 인민의 심정을 새겨놓아 줄어붙어가는 새 세대 청년들과 마을사람들, 그런가하면 소극성과 보수주의

우리들의 꿈과 리상을 그대로 담고 보다 의미있는 사상의 메아리로 울려지고있다.

《산울림》의 메아리에 화답해나선 우리 인민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으며 서로 돕고 이르는 화북한 대가정에서 더욱 아름다운 조국의 미래를 개구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새 세대 청년들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열매세우고있으며 그속에 우리 인민의 심정을 새겨놓아 줄어붙어가는 새 세대 청년들과 마을사람들, 그런가하면 소극성과 보수주의

오늘날 인류는 에너지생산의 80~9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있다.

그러나 지구상에 화석연료 자원이 일정한 한도이었고 또 그것을 이용한 에너지생산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석연료의 리용은 지구 온난화의 기본원인으로 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데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에 의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자연에너지를 리용하고 환경보호

액이 수천억USS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화석연료 대신에 자연환경에 전혀 해를 주지 않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리용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수력, 풍력, 지열, 태양열과 같은 자연에너지의 우점은 그 자신이 무진장하며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할뿐 아니라 늘어난 에너지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자연에

자연에너지를 리용하고 환경보호

네트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을 긴장한 에너지문제를 푸는 것과 함께 날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고 보고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지난 시기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를 비롯한 자연에너지는 자연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량이 세계 전력생산량의 약 2.5%에 달하였다고 보고있다.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주 손 이

우리 나라에는 지방마다 특색 있는 민요들이 많다.

그중에서 서도민요는 조선민요의 우수한 특성을 뚜렷이 가지고있는 대표적 민요이다.

서도민요는 우리 나라 서도지방에 포함되는 오늘날의 평안남도와 자강도, 황해남북도의 민요들을 말한다.

서북지방민요 또는 평서지방 민요라고도 한다.

《서도아리랑》,《몽강나리》,《양산도》,《도리타령》,《풍년가》,《락연포》 등이 대표적인 서도민요들이다.

최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에서 고구려벽화무덤을 새로 발굴하였다.

자연에너지를 리용하고 환경보호

자연에너지를 리용하고 환경보호

자연에너지를 리용하고 환경보호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에 큰 힘을

개성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대중근로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민족유산 보호를 귀중히 여기며 력사유적과 유물을 적극 애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성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숭고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펼쳐나서 민족유산보호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고있다.

지남에서 참가하여 진행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 제37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개성시의 역사유적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된 이후 개성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들에 표시비를 붙여왔게 만들어 새워놓았다.

개성시당위원회와 개성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표시비를 만들어 새우는데 필요한 석재와 세멘트를 비롯하여 많은 건설용자재들을 확보하여 해당 부문과 관련단위의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표시비를 세우도록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었다. 홍순도, 김철만동무를 비롯한 개성시의 민족유산보호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시간의 근로자들과 힘을 합쳐 표시비를 짧은 기간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대중근로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민족유산 보호를 귀중히 여기며 력사유적과 유물을 적극 애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성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숭고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펼쳐나서 민족유산보호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고있다.

지남에서 참가하여 진행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 제37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개성시의 역사유적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된 이후 개성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들에 표시비를 붙여왔게 만들어 새워놓았다.

개성시당위원회와 개성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표시비를 만들어 새우는데 필요한 석재와 세멘트를 비롯하여 많은 건설용자재들을 확보하여 해당 부문과 관련단위의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표시비를 세우도록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었다. 홍순도, 김철만동무를 비롯한 개성시의 민족유산보호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시간의 근로자들과 힘을 합쳐 표시비를 짧은 기간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대중근로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민족유산 보호를 귀중히 여기며 력사유적과 유물을 적극 애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성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숭고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펼쳐나서 민족유산보호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고있다.

지남에서 참가하여 진행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 제37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개성시의 역사유적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된 이후 개성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들에 표시비를 붙여왔게 만들어 새워놓았다.

개성시당위원회와 개성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표시비를 만들어 새우는데 필요한 석재와 세멘트를 비롯하여 많은 건설용자재들을 확보하여 해당 부문과 관련단위의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표시비를 세우도록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었다. 홍순도, 김철만동무를 비롯한 개성시의 민족유산보호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시간의 근로자들과 힘을 합쳐 표시비를 짧은 기간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대중근로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민족유산 보호를 귀중히 여기며 력사유적과 유물을 적극 애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성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숭고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펼쳐나서 민족유산보호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고있다.

지남에서 참가하여 진행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 제37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개성시의 역사유적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된 이후 개성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들에 표시비를 붙여왔게 만들어 새워놓았다.

개성시당위원회와 개성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표시비를 만들어 새우는데 필요한 석재와 세멘트를 비롯하여 많은 건설용자재들을 확보하여 해당 부문과 관련단위의 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표시비를 세우도록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었다. 홍순도, 김철만동무를 비롯한 개성시의 민족유산보호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시간의 근로자들과 힘을 합쳐 표시비를 짧은 기간

세계 각지의 특이한 살림집 풍습

—물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캄보디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물우에 집을 짓고 산다. 이런 집은 수상가옥이라고 한다.

이 나라 사람들이 물우에 집을 짓고 생활하는 것은 천진만만 조부대들이 서로 물을 뿌리며 장난질하는 모습, 머리수건을 쓴 녀자들이 뱀을 머고 남새를 씻는 모습, 달이엔 그물침대에 늪이들이 누워 한가로이 낮잠을 자는 모습, 지어는 물우에 떠있는 삼겹, 병헌, 학교 등도 여기저기 볼수 있다.

—에스키모인들의 얼음집

북극에서 사는 얼음집을 살고 사는 에는 한 추위를 막을수 없다. 때문에 추위를 막을수 없는 따뜻한 집이 무엇보다 필요였다. 이러한 북극에서 생활하는 에스키모인들은 집마저도 얼음으로 짓는다. 그들은 집을 지을 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

늘어나 무려 1만km에 달한다.

많은 캄보디아사람들은 수상가옥에서 살면서 물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간다. 이곳에서 배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되고있다. 배생이 앉아 천천히 앞으로 가느라만 수상가옥에서 생활하는 천진만만 조부대들이 서로 물을 뿌리며 장난질하는 모습, 머리수건을 쓴 녀자들이 뱀을 머고 남새를 씻는 모습, 달이엔 그물침대에 늪이들이 누워 한가로이 낮잠을 자는 모습, 지어는 물우에 떠있는 삼겹, 병헌, 학교 등도 여기저기 볼수 있다.

—에스키모인들의 얼음집

북극에서 사는 얼음집을 살고 사는 에는 한 추위를 막을수 없다. 때문에 추위를 막을수 없는 따뜻한 집이 무엇보다 필요였다. 이러한 북극에서 생활하는 에스키모인들은 집마저도 얼음으로 짓는다. 그들은 집을 지을 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

늘어나 무려 1만km에 달한다.

많은 캄보디아사람들은 수상가옥에서 살면서 물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간다. 이곳에서 배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되고있다. 배생이 앉아 천천히 앞으로 가느라만 수상가옥에서 생활하는 천진만만 조부대들이 서로 물을 뿌리며 장난질하는 모습, 머리수건을 쓴 녀자들이 뱀을 머고 남새를 씻는 모습, 달이엔 그물침대에 늪이들이 누워 한가로이 낮잠을 자는 모습, 지어는 물우에 떠있는 삼겹, 병헌, 학교 등도 여기저기 볼수 있다.

—에스키모인들의 얼음집

북극에서 사는 얼음집을 살고 사는 에는 한 추위를 막을수 없다. 때문에 추위를 막을수 없는 따뜻한 집이 무엇보다 필요였다. 이러한 북극에서 생활하는 에스키모인들은 집마저도 얼음으로 짓는다. 그들은 집을 지을 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

늘어나 무려 1만km에 달한다.

많은 캄보디아사람들은 수상가옥에서 살면서 물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간다. 이곳에서 배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되고있다. 배생이 앉아 천천히 앞으로 가느라만 수상가옥에서 생활하는 천진만만 조부대들이 서로 물을 뿌리며 장난질하는 모습, 머리수건을 쓴 녀자들이 뱀을 머고 남새를 씻는 모습, 달이엔 그물침대에 늪이들이 누워 한가로이 낮잠을 자는 모습, 지어는 물우에 떠있는 삼겹, 병헌, 학교 등도 여기저기 볼수 있다.

—에스키모인들의 얼음집

북극에서 사는 얼음집을 살고 사는 에는 한 추위를 막을수 없다. 때문에 추위를 막을수 없는 따뜻한 집이 무엇보다 필요였다. 이러한 북극에서 생활하는 에스키모인들은 집마저도 얼음으로 짓는다. 그들은 집을 지을 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

우리 나라에는 지방마다 특색 있는 민요들이 많다.

그중에서 서도민요는 조선민요의 우수한 특성을 뚜렷이 가지고있는 대표적 민요이다.

서도민요는 우리 나라 서도지방에 포함되는 오늘날의 평안남도와 자강도, 황해남북도의 민요들을 말한다.

서북지방민요 또는 평서지방 민요라고도 한다.

《서도아리랑》,《몽강나리》,《양산도》,《도리타령》,《풍년가》,《락연포》 등이 대표적인 서도민요들이다.

우리 나라에는 지방마다 특색 있는 민요들이 많다.

그중에서 서도민요는 조선민요의 우수한 특성을 뚜렷이 가지고있는 대표적 민요이다.

서도민요는 우리 나라 서도지방에 포함되는 오늘날의 평안남도와 자강도, 황해남북도의 민요들을 말한다.

서북지방민요 또는 평서지방 민요라고도 한다.

《서도아리랑》,《몽강나리》,《양산도》,《도리타령》,《풍년가》,《락연포》 등이 대표적인 서도민요들이다.

우리 나라에는 지방마다 특색 있는 민요들이 많다.

그중에서 서도민요는 조선민요의 우수한 특성을 뚜렷이 가지고있는 대표적 민요이다.

서도민요는 우리 나라 서도지방에 포함되는 오늘날의 평안남도와 자강도, 황해남북도의 민요들을 말한다.

서북지방민요 또는 평서지방 민요라고도 한다.

《서도아리랑》,《몽강나리》,《양산도》,《도리타령》,《풍년가》,《락연포》 등이 대표적인 서도민요들이다.

우리 나라에는 지방마다 특색 있는 민요들이 많다.

그중에서 서도민요는 조선민요의 우수한 특성을 뚜렷이 가지고있는 대표적 민요이다.

서도민요는 우리 나라 서도지방에 포함되는 오늘날의 평안남도와 자강도, 황해남북도의 민요들을 말한다.

서북지방민요 또는 평서지방 민요라고도 한다.

《서도아리랑》,《몽강나리》,《양산도》,《도리타령》,《풍년가》,《락연포》 등이 대표적인 서도민요들이다.

인권의 무덤에서 벌어진 도발광대극

피괴국방부 대변인 김민석이라는 자가 대신 집 장이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격으로 우리를 함부로 협박하며 마구 압박을 가한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처사는 중요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도 이자의 도발적당발을 북남판계를 대결의 국안으로 몰아가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위험천만한 악당도 비단, 단파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중대보도를 통하여 특대형도발자들을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한 타격적으로, 온 거기에 바라는 진진보복적으로 한눈도 남김이 없이 모조리 죽여버릴 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까지 울려번치고 있는 열적의 보복의지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이에 바빠맞은 남조선피괴국군은 그 무슨 《군사위협이니, 《유습》이니 뭐니 하면서 군부나방병이의 죄과를 변명해보려 하고 있다.

한진 식민지공공군의 대변인이 발표한 김민석이라는 자는 우리 공화국의 지위를 함부로 협박하는 것으로,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한 타격적으로, 온 거기에 바라는 진진보복적으로 한눈도 남김이 없이 모조리 죽여버릴 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까지 울려번치고 있는 열적의 보복의지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이에 바빠맞은 남조선피괴국군은 그 무슨 《군사위협이니, 《유습》이니 뭐니 하면서 군부나방병이의 죄과를 변명해보려 하고 있다.

원래 김민석이라는 자는 리명박《정권》시기부터 피괴국방부의 대변인노릇을 하면서 북의 《도발》과 《위협》이라는 말을 발명해 해 온 천하에 둘도 없는 대결 미치광이이다. 피괴국부초전정권의 분별 없는 당도에 대한 우리의 경고를 두들기고 《위협》이니, 《유습》이니 하며 전쟁광기를 부린 자이다. 우리의 아랑곳 없는 전쟁광기를 부린 자이다.

에 대해서도 《도발》을 위한 것으로 여론을 오도한 자도 바로 김민석이다. 이런 대결미치광이에게서 우리에게 대한 좋은 소리가 나올리 만무한 것이다.

문제는 피괴국방이 진정한 인권에 대해 할거나 하고 그따위 허튼 나발을 불어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민위원의 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서 인민들은 누구나 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고 있으며 자기의 운명도 미래도 모두 고마운 어머니 조국의 품에서만 지켜지고 담보될 수 있는 것을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진리로 깨닫고 있다. 그런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이 누리고 있는 보람찬 생활은 남조선 사대주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엄높고 행복한 참다운 생활이다.

더우기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로서의 인권은 나라의 자주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창의를 의하여 수립된 인민의 나라이다. 하지만 남조선에는 미국이 총칼을 휘둘러 주물러낸 아무런 자주권도 없는 피괴국정이 있을뿐이다. 미국의 지배에서 침략군이 활개치는 《남이 사는 나라》, 이것이 바로 남조선인민들자체가 개탄해마지 않는 남조선사이다. 외세에게 존엄과 자주권을 짓밟힌 땅에 참다운 인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자주적권리와 민족적통일을 무참히 짓밟고있고 민족적통일배들과 제법들은 인민들의 머리에 군림하여 근로대중의 피땀을 빨아먹으며 온갖 특혜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 백성들이 죽어간 것들의 부귀한 막을 추추하는 박근혜당이 통치하고 있는 남조선이야말로 인민의 통치

대, 자유의 무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괴국부대장이 그 무슨 《인권》이니, 《자유》니 하며 우리를 절고드는데는 불순한 목적을 갈라 있다. 그것은 우리를 자극하고 긴장을 고조시켜 《세월》호참사로 인한 최악의 통치위기에 헤어나보려는 것이다.

《세월》호침몰사고를 날개로 피괴국방의 반인민적정체를 날아 드러내려 분노한 민심은 반연《정권》파도에도 쏠리고 있다. 이것은 다가오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의 박근혜당의 수직스러운 참패를 예고해 주고 있다. 궁지에 몰린 피괴국방은 그 누구의 《핵시협설》을 적극 내세우고 무인기사건을 《북소행》으로 몰아대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으로 《북풍》을 요란하게 일구어 위기를 모면하고 싶기를 열어보고 발광하고 있다. 피괴국방부 대변인이 이번엔 전례없는 대결폭언을 늘어놓은 것은 그 연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피괴국방의 이번 특대형도발이야말로 썩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망종이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이 《조선국방부가 왜 이렇게 얌전하지 않느냐》서서 알 수가 없다. 불탄한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기라도 작정이라도 한 것 같다. 《고》비난하고있겠는가.

박근혜당이 아무리 《인권》이니, 《자유》니 하고 떠들며 반공화국도발소동에 열을 올리려도 우리의 존엄높은 영성을 해칠 수 없으며 저들의 불순한 총계를 가리울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민족민권의 무리를 모조리 격렬소탕하여 피괴국부의 특대형도발행위를 영원히 종지부를 찍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겨 세워 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적의 지지만을 더욱 굳게 해줄 뿐이다.

열어놓겠다고 흰소리며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았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경제민주화》는 허울뿐이고 《맞춤형복지》공약은 파기해버렸으며 경제와 민생은 더욱 악화되어 파탄에 직면하였다. 남조선 각계에서 박근혜의 집권 1년간 《진짜 잘한것은 박근혜의 옷자락뿐》이며 민중은 오히려 불행해지고 《대통령》만이 행복했다고 야유, 조소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당은 집권하자마자 《유신》독재의 칼날을 더욱 시퍼렇게 갈아 통일애국인사들과 단체들,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요구해나선 각계층 인민들에게 무자비한 독재를 실시하였다. 진보적정당과 단체, 인사들을 《종북분류》로 몰아 박해하고있으며 생생한 권리를 요구해나선 노동자들까지 탄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어는 저들의 부정정서를 폭로단죄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도 범죄시하고 있다.

피괴국방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더는 살래야 살 수 없어 한창은 저주를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오늘 남조선이 자살열에서 세계에서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사실만 놓고도 박근혜당의 인권을 뒤흔트리는 자의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남조선에서 근로인민대중은 날이 갈수록 파소독제와 반인민적악정에서 자주적권리를 무참히 짓밟고있고 민족적통일배들과 제법들은 인민들의 머리에 군림하여 근로대중의 피땀을 빨아먹으며 온갖 특혜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 백성들이 죽어간 것들의 부귀한 막을 추추하는 박근혜당이 통치하고 있는 남조선이야말로 인민의 통치

대중적항쟁의 불길을 지퍼올려야 한다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가 있는 때로부터 34년이 되었다. 광주인민봉기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군사파소독제를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영웅적 항쟁이었다. 지금 우리 거머는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역사의 한페이지를 기록한 광주항쟁 용사들의 영웅적투쟁과 빛나는 위훈을 되새겨보고 있으며 광주시를 항쟁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의 피와 피를 뒤집은 미국과 피괴국부대들에 대한 사무치는 분노로 가슴을 뻐기고 있다.

자주, 민주, 통일은 광주항쟁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염원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유신》독재의 후예들이 판을 치는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는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박근혜당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미국에 더욱 철저히 내맡기고있으며 미국의 《유신》파소독제들을 부활시키면서 인민들이 피괴국에 쫓겨난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성과마저 깡그리 말살하고 있다.

《세월》호대참사가 말해주는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은 박근혜당의 반인민적악정으로 하여 말그대로 남조선인민들이 한시도 마음놓고 살 수 없는 인간생지옥으로 되고 있다. 박근혜당은 저들의 반역통치의 후과로 조래된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온갖 패륜행위를 피괴국들에게 두벌죽음을 가하고 있다. 한편 《대국민당화》발포니, 《정부개조》니 하면서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려 하고있고 있으며 여론의 시선을 떠돌이로 돌리고 최악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우리를 절고드는데는 특대형도발과 무인기소동, 《북풍》소동을 일으키면서 북남판계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인민들에 대한 기만우롱과 반공화국도발로 저들의 흉악한 반역적정체를 가리우고 다가오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참패를 면해보자는 것이 피괴보수패당의 속심이다.

박근혜당의 책동을 목인한다면 남조선인민들이 외세에 의해 강요당하는 굴욕과 수치는 더 해질것이며 몹서리치는 파소독제와 반역적악정에 제 2, 제 3의 《세월》호참사도 계속 일어나 인민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것이다. 날로 무분별해지는 피괴들의 반공화국도발과 광판적인 동족대결책동은 우리 민족의 머리에 해처럼 낱자 몰아오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남조선의 처참한 현실은 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난 당시의 상황과 조금도 다를바 없으며 각계 진보세력의 각성과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참사를 통하여 박근혜당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것도 지퍼볼것도 없는것을 피눈물속에 체정한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가 살아남아라!》,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모이자 금남로! 심판하자 박근혜!》라는 구호를 해치며 투쟁의 거리를 펼쳐나가고 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남조선인민들이 광주항쟁용사들의 넋을 이어 대중적인 반《정부》항쟁에 총열기해나설 때면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박근혜당의 반역적악정을 짓부실 수 있도록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염원도 실현할 수 있다. 다가오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 극악한 살인마 박근혜당에게 수직스러운 참패를 안길로써 반연《정권》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어야 한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용감히 싸우다가 쓰러진 광주항쟁용사들의 항거정신은 오늘도 살아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기상과 강한 투쟁정신을 안고 하나로 굳게 단합하여 반연《정권》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시대와 민심이 열망하는 민족앞에 갈수록 엄청난 위업을 지저르고있는 피괴패당을 단호히 징벌해야 할 것이다.

김 현 철

외세에게 군통수권을 통채로 떠맡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식민지괴뢰

여러 나라 단체들 성명 발표

영국조선친선협회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의 전직작전통제권전환 재연기행동을 규탄하여 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현재 미국은 남조선피괴군에 대한 전직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원래 남조선이 2012년에 넘겨받기로 된 전직작전통제권이 지금까지 연기되어왔다.

군대의 전직작전권을 다른 나라가 행사하는 것은 세계에서 남조선이 유일하다.

사실상 남조선당국은 가장 참담한 피괴미치광이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다.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 주제사상연구구조가 남조선피괴도당의 전직작전통제권전환 재연기행동을 규탄하여 7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얼마전 박근혜가 남조선을 행한 미국대통령에게 전직작전통제권전환을 재연기하도록 간청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추악한 매국행위이다. 남조선피괴군은 외세에게 군통수권을 통채로 떠맡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꼭두각시 군대이다.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이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직작전통제권전환 재연기행동을 조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결행위이다.

이로써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들이 북침정정보발책동에 열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중적인 반《정부》투쟁소식들을 보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당풍까지 부리고 있다.

이것은 박근혜당의 극악한 반인민적악정으로 빚어낸 대참변으로 애정중지 키운 자식들을 죽이고 잃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피괴자유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아른 가슴을 두드리는 판도질하는 또 하나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범죄이다.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는 언론의 생명인 진실보도의 권리와 자유를 유린하고 언론을 식민지파소독제의 시너로, 어용나팔수로 전락시킨 박근혜당의 천주에 속수무통한 악행을 정의와 진리를 바라는 인류의 지성과 향성의 목소리를 합쳐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언론은 정의의 빛대, 향성의 마이프로 불의를 태우고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선각자이며 무거운 언론의 추동자이다.

언론이 바로서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고 정의와 진리를 지켜낼 수 있다.

한창 러치는 꽃망울같은 나아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론들의 이러한 비렬하고 추악한 광란에 피해자유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에서 어찌 분노의 분화구를 터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기의 분노를 저버린 보수언론에 침을 뱉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회악을 폭로하고 공정한 보도를 주장한 언론인들이 쇠공물을 차고 절창을 끌고가고 진보적인 언론인들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어 폐간위기에 직면해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남조선언론 현실이다.

하기에 미국과 서방언론들, 국제기구들까지도 박근혜당의 언론탄압과 여론조작책동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남조선을 언론불모지, 사이비언론의 란무장으로 낙인하고 있다.

지금 피괴패당은 격노한 민심을 무마하고 여론의 이목을 떠돌이로 돌리기 위해 《KBS》방송, 《YTN》을 비롯한 어용보수언론들을 동원하여 무인기사건이니, 《북핵위협설》이니 하는 등의 각종 반공화국도발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남조선의 인 터네신론 《자주민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경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3일 서울의 자유시장사판앞에서 176차 주미동맹평화행동을 가졌다.

단체는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가 새로 내정된대 대해 언급하

남조선 대학들에서 결핵환자 증가

14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대학들에서 결핵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산대학교에서 14명의 학생이 결핵환자로 판명되었다.

60여명도 결핵군에 감염되

동족대결과 모략에 환장한 시정배무리를 쓰레기통에 단호히 처박자

보온병 사건의 복사판

얼마전 남조선피괴군부대거리가 또다시 일으킨 무인기소동이 내외의 커다란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14일 피괴합동참모본부는 《무인기추락잔해를 발견》하였다는 엉터리없는 소식을 언론에 서둘러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당국의 어용나팔수인 피괴보수언론들은 일제히 우리를 절고드는데 글을 썼다.

《조선일보》는 《북의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기 발견》이라는 표제를 달고 무인기추락지역은 남조선미동합군사령부의 전직시하은제와 있는 곳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곳에서 《북무인기》가 발견된것이라고 나름대로의 엉터리추측까지 하였다. 《동아일보》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북무인기는 이미 영증

한 위험》이라는, 만일 그것들이 공격용으로 개조된다면 남조선의 《핵발전소들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는니 하는 모략나발을 불어냈다.

이런 속의 피괴군부대거리들은 추락된 무인기가 《북의 것》이라는것을 증명하는데 힘을 집중할것이라고 떠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황당무계한 착오라는것이 곧 드러나 여론의 웃음거리로 되고말았다.

남조선 각계는 피괴군부가 변소공작을 서둘러 《북무인기》로 규정하는 회피극을 논제 대해 경솔한 처사라고 신랄히 비난하였다.

아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인기착오사건이 《해의 중죄화제》가 되어 남조선을 망신시키겠다고 하면서 피괴군부들 담

아세웠다.

《한국일보》는 《변소문짜까지 무인기라고 오만, 황당하기 그지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사건 직후 그곳에 나타난 《한나라당》(당시) 대표 안상수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보온병을 주어들고 왕정호에 《북의 포탄점제기》라고 하면서 《북위협》을 렵설하다 그 진상이 드러나 특특히 망신을 한 보온병사건의 복사판이라고 전하였다.

《한겨레》는 《세월》호참사로 남조선사회가 혼란된 이후에 군부고위층이 무인기를 리용하여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 하지 않는가 의심된다고 까발렸다.

한편 한 위원은 무인기착오사건으로 공경에 처하게 된 남조선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피괴군부가 변소문짜까지 《북의 무인기》라고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망종으로 피괴패당이 더욱 궁지에 빠지고있다고 평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국제문제전문가도 이번 사건은 남조선군부와 언론들이 북을 모함하기 위한 별의별 근거를 다 생각해내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박근혜를 피괴에 빠뜨리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무인기착오사건으로 하여 반공화국모략과 동족대결에 이골이 난 피괴패당은 내외에서 깨닫게 망신을 당하고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다.

본사기자

통술한친분이 라는 비단소나기가 들춰되었다.

최우관 피괴군부에 망신살이 뻘뻘했다. 이런것을 두고 언 불기에 공장맞은 꼴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어찌겠는가. 모 든것이 동족대결과 모략에 이골이 난 저들 탓인데.

피괴들이 무인기사건이니 뭐니 하며 아무 우리를 절고드는데 차떼질것은 그런 망신과 수치뿐이다.

허 영 민

에 피눈이 되어 날던 피괴들이라 할지라도 변소문짜를 어떻게 《북무인기》라고 계속 고집할 수 있겠는가. 하는소리가 오히려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정정하러 사대수에 나섰지만 행차 끝나버렸다. 변소문짜와 무인기도 제대로 가려 못 보고 《북무인기》소동을 일으킨 피괴군부의 당도에 대한 내외의 비난과 조소, 항의규탄이 비발치듯 하였다. 지어 《세누리당》까지 대변인을 내세워 현지조사도 없이 무터라고 발견된 물체를 《북무인기》로 단정된 군부를 향해 《어리석은 잘못》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위신들도 피괴당국이 《변소문짜도 위협으로 간주》한 대로 조소를 부어주었다.

미친개의 눈에는 동등이밖에 안보인다고 변소문짜도 《북무인기》라고 보면 추태를 부린 피괴들은 남조선인민들과 세계의 면전에서 개고망신당하였다.

내외의 웃음거리로 된 피괴군부대거리들의 이번 소동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월》호대참사로 하여 국도의 위기에 빠진 박근혜당이 더욱 무터의 출로를 찾기 위해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동족대결책동의 필연적산물이다.

《세월》호침몰사고로 피괴당의 반인민적정체가 날밤이 폭로되고 그로 하여 반《정부》인식이 최정정에 달하게 되자 불안

명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발광하고 있다. 이번 《북무인기》오만사건은 최악의 《정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반공화국모략소동에 기세를 부리는 박근혜당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여실히 드러내보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북무인기》오만사건은 주민들의 의식을 자극하고 언론의 시선을 혼돈시켜 《세월》호참사로 불리해진 정권을 돌리려는 집권세력의 유치한 광대극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박근혜당이 어떻게 하나 기울어진 형세를 바로잡아보려고 단박하고있지만 오산이다.

피괴들은 반공화국모략소동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더 큰 수치와 망신을 당하고 종당에는 비참한 파멸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것을 특특히 염여야 한다.

본사기자 장윤남